

지역 매아리

희망이 샘솟는 행복도시 정읍

정읍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연중형 사업 참여자를 이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인원 411명이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연중형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이를 위해 정읍시는 지난 2일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정읍시니어클럽, 정읍시노인복지관, 성공회행복노인복지센터, 하늘향노인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수행기관에서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수행기관별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참여자 선정을 완료한 후 이달 18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1일 3시간씩 탄력적으로 월 30시간을 근무하며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인부확인 및 말벗, 도시락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전년보다 13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더 확장했다"며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소나무 불법 굴취 무단 반출 상시 특별단속

부안군, 소나무 불법 굴취 무단 반출 상시 특별단속

부안군이 최근 관내에서 소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소나무 불법 굴취와 무단 반출에 대한 상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주산면 한 문중에서 문중 소유 임야의 소나무를 허가 없이 굴취행위를 해 관련자가 인건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주산면 한 임야에서 허가 없이 야간에 소나무를 굴취해 무단으로 반출시킨 사실을 CCTV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하고 산주와 조경업자, 작업자 등을 일간해 조사하고 있다.

이달에도 상시 단속 소나무 임야에서 당초 굴취허가를 받은 소나무보다 더 많이 굴취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부서에서 굴취허가를 중지한 상태이며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상시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 불법 굴취 및 무단 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관내 우량 소나무가 많아 조경업자들이 소나무를 노리고 산주나 문중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군청에 허가를 여부를 확인하고 굴취허가 및 소나무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유진섭 시장 시정운영 계획발표... "지역자원 고부가가치화 소득·행복지수 높일 것"

"희망 넘치는 정읍 실현을 위해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산업단지 등 지역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해 시민의 실제 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일 것입니다" 유진섭 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유 시장은 "취임 이후 늘 현장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차근차근 설계해 가며 시정 발전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올 한해 희망이 샘솟는 행복도시 정읍을 만들어 나가면서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행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5개 분야 82개 공약사업 확정 등 지난해 성과를 간략히 언급한 후 5개 분야의 큰 틀에서 새해 시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먼저 '세일즈 정읍'으로 모이는 정읍 만들었다.

이러한 각오를 담아 올해를 '정읍 마케팅 원년'의 해로 선언했다. 특히 2019~2020년을 정읍 방문의 해로 운영한다. '감동 호르본 분출, 체험여행 1번지 정읍!'을 비전(vision)

으로, 5월에는 정읍방문의 해 선포식도 갖는다.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를 비롯 2019 설날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고 동학농민혁명과 백제가오 정읍사, 태산산비문화 등 정읍만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에도 힘을 쏟는다.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기술창업 촉진을 비롯 첨단과학산업 단지 기업유치와 2단계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입주기업 맞춤형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가속화와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청년 메이커센터 조성, 27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빈틈 없이 추진한다. 건강하고 특색 있는 농업 기반을 구축한다.

에코축산플러스터사업단 운영과 범새재감 미생물계제 활용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경영 확산 정읍을 조성한다. 4차 산업시대 과학기술과 접목시킨 스마트팜 활성화와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과 함께 미



래 경쟁력 작목 발굴과 육성은 물론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와 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강화와 일·가정 양립 사회기반 조성,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이 대표적인 복지 관련 사업들이다.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를 본격 시행하고 농촌복지택시를 확대하며, 장애인 바우처 택시와 전기 저상버스도 도입한다.

유 시장은 "활동도시, 즉 상생과 화합을 통해 지금까지 구상하고 마련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품격있는 생태관광 중심지 구축에 탄력

고창 선운산유스호텔, 여가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

고창 선운산유스호텔이 정부인증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 받아 '품격있는 생태관광 중심지' 구축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선운산유스호텔이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8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운산유스호텔은 이번 심사에서 적절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조직과 인력 운영현황 등 각종 항목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시설 안전점검 항목 중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내진 등 항목에서 A등급을 획득했고, 가스 및 위생 점검에서도 전국 최우수에 가까운 '매우적합' 판

정을 받아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물로 평가 받았다.

선운산유스호텔은 지난 1999년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자락에 개원해 연간 약 2만500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호남권 최대의 청소년수련시설이다.

고창군은 유스호텔에 대해 최근 3년에 걸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해 건물의 안전도와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우수등급 선정으로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기본 줄기 하루 더 머물고 지역 관광 명소들을 더 많이 둘러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며 "앞으로도 고창을 찾는 청소년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베리&바이오희식품연구소, 실험동물실 다양한 성과 주목

고창 (재)베리&바이오희식품연구소(이 사장 유기상)가 실험동물 시설 운영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8일 (재)베리&바이오희식품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연구소 개소 이후 이듬해인 2012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능평가센터 실험동물 시설'을 인증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는 실험동물시설이 설립된 이후 2012년부터 동맥경화, 혈압, 당뇨, 비만 등의 대사성질환과 전립선기대, 남성갱년기, 알레르기, 변비 및 유산균등의 다양한 기능성 효능평가를 진행해 왔다.

특히 연구소에서 진행된 동맥경화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임상실험을 진행했다. 또 2015년 대상(주)의 의뢰를 받아 '황국곡자(누룩곰팡이균)의 혈중지질 효능 평가'를 진행했고, 고창 관내에

서도 '고창산 마카와 복분자를 이용한 남성 생기능 개선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주비타민하우스의 위탁과제로 '장내 유산균 생존을 동물실험'을 완료해, 올해 프리바이오티(유산균의 먹이로써 장내 환경을 개선시킨)와 신바이오티(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티 혼합) 제제 제품 2건(유산균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연구소 실험동물시설은 약 52.89㎡ (16평 규모)에 식약처 실험동물시설 인증기준에 따라 세척실, 동물사육실, 수술실 등으로 구성돼 있고, 실험동물 판매 전문업체를 통해 실험동물(마우스, 랫드)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재)베리&바이오희식품연구소 유기상 이사장은 "실험동물 시설을 군민과 외부기관의 적극적 이용을 통해, 고창군 농·생명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이들에게 엄마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정읍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30가정 지원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경제적 부담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이달 25일까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을 미 방문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며, 왕복항공료와 여행비용, 현지교통비, 공항왕복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 유효하다. 선정은 가정형편, 모국방문 횟수, 거주(결혼)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순으로 결정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모국방문을 실시하게 된다.

2019년 사업대상은 총 30가정으로서 4인 가정을 기준으로 4백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7가정 406명에게 고향나들이 지원금으로 2억 5천여만원을 지원하여 가족 간의 문화이해와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본 사업의 확대는 유진섭 정읍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10가정에서 30가정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았던 가정을 제외했던 규정을 완화하여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은 재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2018년 고향나들이 지원을 통해 800 베트남을 방문한 응우엔티 불 씨는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처음 고향에 다녀와서 꿈만 같았으며 무엇보다 아들·딸에게 엄마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은 "이민자와 2세들에게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읍거주 결혼이민자 가정은 674세대 2,557명으로 시 인구의 약 2.3%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주민지원과 다문화가족팀 (☎063-539-5558)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 SET 3세 | 750ml 1ea/12% |
GIF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 SET 5세 | 375ml 5ea/13% |
GIF SET 6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 SET 7세 | 375ml 2ea/13% |

TEL : 063-584-9990
www.gangsanwine.com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